희망 못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 자격 까다로워 광주·전남 지원율 저조

농번기와 겹쳐 농가 일손부족 우려도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까다로운 '지원자격'으로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고 있는 등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수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정부 및 자치단체가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다음달 1일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5만개의 일자리 제공,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광주 지역은 7천500명, 전남은 1만18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자들은 다음달부터 6개월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현금과 상품권을 포함해 월 83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별로 일제히 희망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난 19일 현재 광주는 모집정원의 37%(2천790명)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2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50~60만원 수준인 공공근로 보다 '희망근로'의 임금이 월 8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지원자가 이처럼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까다로운 '지원자격' 때문이다.

희망근로 사업 지원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가족 기준 159만원)이고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18세 이상 실직자 및 휴·폐업자들이 우선 대상이다.

여기에 모집기간이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도(農道)인 전남의 경우 모집 정원을 제대로 채울지도 우려시 되고 있다. 반면, 농촌 청·장년 층이 '희망근로'로 몰릴 경우 농번기 '일손 부족'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공공근로와 일자리 중복도 불가피한 데다 사업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있어 '장기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재래시장·동네가게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 임금의 30~50%를 지역 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광부 '표적 감사' 항의

황지우 한예종 총장 사표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56)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장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규정 위반 적발과 관련해 "이번 감사는 전형적인 표적 감사"라며 문화관광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석관동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부의 감사 지적사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식물총장 상태로 더 머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 뒤 문화부에 들러 사직서를 제출했다.

황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3월18일~5월1일 진행된 문화부 감사실 감사는 학교 17년 연혁 가운데 유례가 없는 '융단폭격식 감사'"라며 "감사 후반기에 접어들자 이번 감사가 총장 퇴진과 한예종 구조개편을 겨냥한 전형적인 표적감사라는 것이 노골화됐다"고 말했다.

황 총장은 "한예종 도약을 위한 시도가 문화부 감사에 의해 완전히 봉쇄된 지경에 이르렀다"며 "식물상태에 빠진 총장직에 앉아있다는 것이 더이상 의미도 없고 무엇보다 나로 인해 본교에 몰려 있는 수압을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시인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황 총장은 해남 출신으로 한신대 교수 등을 거쳐 지난 2006년부터 한예종 총장을 맡아왔다.

/연합뉴스

일 할 능력없는 46만가구

월 30만원씩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면서 일할 능력이 없는 46만 가구에 연말까지 매월 30만 원(4인 가구)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무능력 가구 생계비 한시 지원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전국 46만 가구(100만명)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는 1억3천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8천5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7천250만 원 이하이다.

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 원, 2인 가구 19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0만 원, 5인 가구 35만 원 등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새마을가족 한마음 전진대회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재창 새마을중앙회장, 새마을지도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마을가족한마음전진대회'에서 지도자대표들이 경제살리기와 녹색생활화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프로야구 선수들 스테로이드 복용"

작년 은퇴 마해영 회고록 출간 … 파문 예고

지난 해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한 강타자 출신 마해영(39·사진) Xports 해설위원이 프로야구 선수 상당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주장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다.

마해영은 19일 발간한 '야구본색(출판사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현역시절 나는 복용이 엄격히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선수들을 제법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 선수들이 훨씬 복용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 선수들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한 뒤 "(성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진다.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 우황청심환을 찾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프로야구선수 출신이 책을 통해 금지약물 복용 실태를 주장한 것은 처음이어서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마해영의 약물실태 폭로를 전해들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KBO 총괄본부장은 이날 "일단 책을 구해 보지 못했다. 책 내용을 확인한 뒤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해영은 "약물 사용은 분명 있었다"고 강조한 뒤 "아무래도 용병이 (약물에) 접근하기 쉬웠고 그들을 통해 국내 선수들도 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마해영은 또 책을 통해 올 초 김재박 LG 감독이 제기했던 선수들간의 '사인거래'도 일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법관이라고 촛불들지 말란법 없다

광주천 '깨끗한 물' 계속 흐른다

정화사업 2급수 개선 … 내달부터 10만t 추가 공급

말라붙은 광주천 바닥에 2급수의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서 광주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73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시행해온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하 광주천 정화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다음 달 2일부터 하수처리장에서 여과된 물 10만t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에 불과했던 광주천 상류의 수심은 최대 30㎝까지 깊어지고, 수질도 기존 3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동구 용연정수장~서구 영산강 합류부에 이르는 19.15㎞의 광주천 정화사업이 올해 말 완공되며, 오니준설·여울형 낙차공 및 배사구 설치 등 하천 정비와 여과 펌프장 및 송수관로 매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 4만3천200톤에, 10만 톤을 더해 매일 14만3천200톤의 물을 증심사천과 원지교, 교동교에서 각각 흘려보내기로 했다.

시는 매일 10만 톤의 물을 광주천에 추가로 공급할 경우 매년 1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천의 수심이 깊어지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하천 생태계가 급속히 되살아나 어류나 조류의 서식도 크게 늘어나는 등 광주천이 도심 내 생태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기존 낙차보에 어도를 설치해 다양한 물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내 설치된 주차장을 모두 철거해 생태적으로 복원하며, 벽천과 인공폭포 등 시민들을 위한 편의공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062)227-9600
• FAX:(062)227-9500

자본감소 공고

본 회사는 2009년 5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 총액 금490,000,000원을 금196,000,000원으로 감소하고, 1주의 금액10,000원, 주식29,400주에 대하여 본 회사가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로 안분 비례하여 1주당 10,000원으로 매수하여 유상소각하기로 하고 발행 주식총수 49,000주를 19,600주로 감소 할 것을 결의 하였음.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다음 날 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 함.

본회사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일로부터 1월내에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0일
주식회사 공단운수
광주 북구 각화동 380
대표이사 이민용

한정승인공고

망 나영숙 (470620-2659612)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656
공 고 인:문기현, 문금송, 문기주
한정승인수리일:2009. 5. 6
공고기간:2009. 5. 20~2009. 7. 19
연 락 처:서울 성동구 송정동 95-4 문기주(010-9806-1122)

광주광역시남구공고 제 2009 - 330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1.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진아 리체아파트 주변 일부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류 304호선 및 중로 2류 8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2.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일반인에게 사전 열람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광주광역시남구청장

1. 사업시행자

노선명	시점	종점	비고
소로2류 304호선	송하동 124-36대	송하동127-42대	
중로2류 84호선	송하동 127-128대	송하동 125-5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명 칭 : 송하동 진아리체아 파트 주변 일부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노선 구분	도시계획결정현황 현장(L)	폭(B)	금회시행 현장(L)	폭(B)	비고
계			285m	8~16m	
소로2류 304호선	133m	8m	80m	8~10m	
중로2류 84호선	520m	15m	205m	15m	

4. 사업비 및 재원조서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비	재원	비고
도로개설공사	1,835	민간자본 (공동주택분양분)	

5. 사업시행자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597번지 진아건설(주) ○성 명 : 대표 조청환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7.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도 : 열람장소에 비치
8.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 : 열람장소에 비치
9. 열람기간 : 2009. 5. 20. ~ 2009. 6. 8 (20일간)
10.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청도시개발과(650-7447), 송하동주민센터(650-8825)

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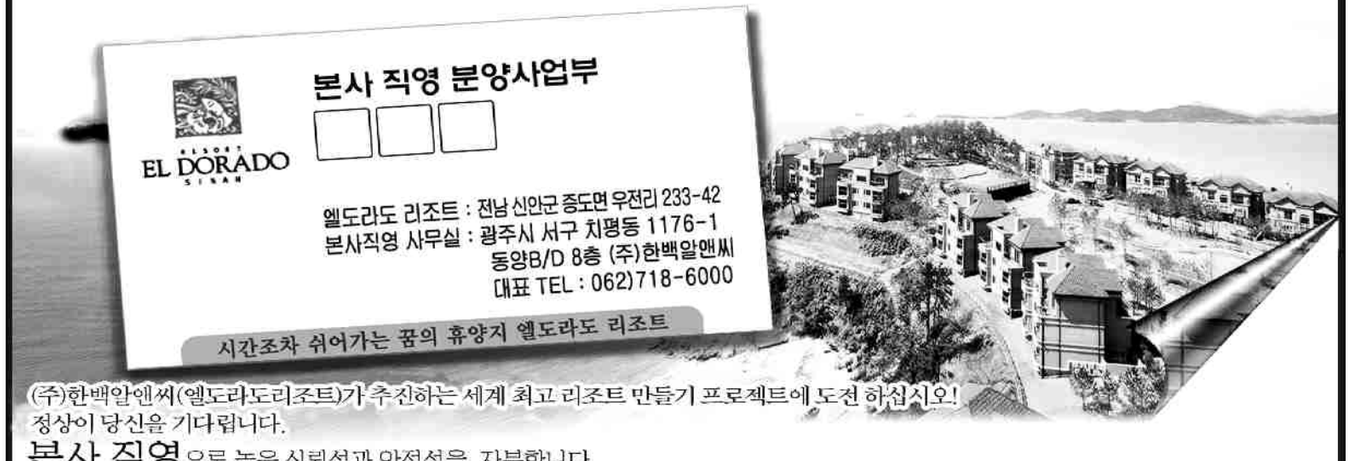
골프회원증
No. J-07-12-0061
함평다이너스티 CC
대한조선 주식회사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500845
광주CC
나승춘
상기 회원증(大,小)을 분실공고함.

임야급매
전남 나주 남평읍 노동리 산 72
6800坪 도로접합
➡매가 1억
☎016-249-8656

엘도라도 리조트 명함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능력과 열정을 가진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한백알앤씨(엘도라도리조트)가 추진하는 세계 최고 리조트 만들기 프로젝트에 도전 하십시오!
정상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본사 직영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자부합니다

모집요강
▶ 모집부문
분양사업부문 ○○명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AM 10:00~PM 5:00)
▶ 지원자격
30세~, 남 · 여(영업 경력자, 주부사원 환영)
▶ 급 여
기본급+일비+인센티브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이력서), 주민등록등본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내사 방문 접수
▶ 접수처 및 근무처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76-1 동양 B/D 8층
(주)한백알앤씨 본사(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옆)
▶ 문의 : ☎ 062)718-6000